

대한 예수교 장로회 지팡이교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요4:24)



1. 지팡이교회는

지팡이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북서울노회에 속한 건전한 정통교회요 개혁교회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신구약성경 66권을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교리와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을 신조로 고백합니다.

2.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이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1980년 11월 11일 개교한 합동신학교의 설립이념을 이어받아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교육 이념으로 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역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는 성경의 무오(無誤)를 기본교리로 가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대,소요문답서 및 교회정치와 예배모범을 성경적인 줄 알고 받아들이며, 또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를 성경적 고백서로 받고,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1) 성경의 무오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의 모든 학설, 2)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연주의, 3) 사람의 책임을 망각하는 무관심주의, 4)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형식주의 또는 의식주의, 5) 허영과 허세와 부실을 개의치 않는 물량주의, 6) 화평을 좇는다는 명목으로 분명한 비진리를 포용하는 타협주의 예로 WCC 운동..., 7)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시를 당하게 하는 무자격한 교역자들의 복음사역 진출 등에 배척합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폐쇄주의를 지향하고, 정치 형태가 개혁교회와 다를지라도 건전한 복음주의 교단과는 교류를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I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고백함과 같이 우리는 땅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다른 교회들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면서 힘쓰겠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요4:24)

예배 인도: 전 은덕 목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124:8

시 편 낭 송		시편134:1-3
다 같 이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영 광 송	...	5장(찬송가)
교 독 문	...	63번(시편145편)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현 상 (봉헌)	...	35장(찬송가) 예배당 입구에
현 상 기 도	...	인도자
성 경 말 씀	...	마16:17-20
시 편 찬 송	...	1장(복 있는 사람은)
목 회 기 도	...	강설자
말 씀 강 설	...	<신앙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찬 송 가	...	310장(찬송가)
낭 독	...	열 가지 언약의 말씀(십계명)
강복선언(축도)	...	전 은덕 목사
광 고	...	교회소식 참고.....

주 일 오 후 모 임

오후 1시 30분

인도: 전 은덕 목사

시편낭송 ...
찬 송 ...
성경말씀 ...
특 강 ...
찬 송 ...
십 계 명 ...
주기도문 ...
교회소식 ...

각 가정별로 설날의 시간이 되십시오.



수 요 성 경 모 임

오후 7시 30분

인도: 전 은덕 목사

시편낭송 ... 시편131편
찬 송 ... 찬송가
성경말씀 ...
말씀연구 ...
찬 송 ... 찬송가
주기도문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신앙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마16:17-20)

오늘의 시대에는 강설(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직접발로 이동해야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만 듣다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저번 주 강설을 통하여 “사도들의 대표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위한 여행을 위해서 사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으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시면서 당신님이 적극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질문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라고 하심으로 제자들 전체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담대하게 대답 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인 동시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대표로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도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님의 죽음을 향한 여행을 하시기 전 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산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시간에 이어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7-19절을 마가와 누가는 모두 생략을 하고 있지만, 마태는 기록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립 하신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바른 신앙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가

르침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심으로 계시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심으로 메시아로 고백한 것에 대한 감격한 마음으로 그 어떤 상급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신앙고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참으로 복된 것은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선행의 행위 그리고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님을 알고 있는 바른 신앙고백을 한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험과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경험과 배움으로 안 것인가? 그의 생업은 어부였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배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바른 신앙고백을 한 것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가롯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많은 경험과 배움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마지막 길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도마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요20:2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교회 성도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경험과 배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해답을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아시게 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하는 지팡이교회가 베드로처럼 복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복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18절에서도 말

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동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요나 시몬’으로 불렀고, 주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상징을 부여하십니다.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뜻을 가진 “반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고 하신 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기 위해서 원어로는 ‘그리고’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리고’를 사용하신 것을 혹시 이해 하 셴습니까? 베드로와 반석을 동일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예수님 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여 베드로와 반석을 이야기 하시기 위해 ‘게바’를 사용했다고 추측합니다. 이것을 마태는 아람어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베드로(페트로 스), 반석(페트라)을 적용하여 번역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18절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 수도 있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 아니냐? 이 반석 위에 장차 내가 내 교 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로 읽으면 주님의 교회를 당신 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이루실 신약의 교회와 베드로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 각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것을 베드로의 이름으로 언어 유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엠2: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 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신앙고백을 점검해야 필요가 있었던 것입 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개인의 사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강조인 것입니다. 엠2:29절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 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 니라” 베드로 한 개인의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주님께 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세워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 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를 마태는 처음으로 ‘에

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왜 처음으로 사용했을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 ‘카알’을 번역한 것입니다. 뜻은 회중,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심으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드신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한 온누리의 당신님의 백성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지팡이교회도 견고한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 등 죽음의 권세, 죄의 저주와 세력에 넘볼 수 없도록 이미 신앙 고백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19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열쇠’의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여 베드로 한 사도에게 천국을 자신의 뜻대로 달고 열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와 같은 고백을 오늘날의 지팡이교회 성도에게도 주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도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심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늘의 열쇠로 참된 고백은 면류관을 받지만, 참된 고백이 아닌 것은 하늘의 문을 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에 주어진 ‘천국 열쇠’의 권세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지만 그 반대는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매다와 풀다’는 미완료시제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기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도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천국 열쇠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당신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알리신 후 20절”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자신의 정체가 제자들 외에는 무리들에게 아직 알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설을 통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래, 야곱의 이름을 왜 바꾸어 주었는가를 통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사래는 ‘열국의 어머니’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 겨루어 이기다’로 확인하심으로 이전과 다른 새 이름을 얻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생애가 이제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성도는 반석과 같이 견고한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지팡이교회에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며,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서 참으로 바르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여 기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훈과 적용

1.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의 경험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알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 증거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할 때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당신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팡이교회는 섬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섬기시기 원하십니까?

2. 베드로의 참된 신앙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른 고백은 예수님의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경험과 지식을 원하지만, 나는 어떻게 고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3. 지팡이교회는 참된 고백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좋아 하는 교회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세속적인 사상과 유행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통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팡이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까?

4. 교회는 역사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도 견뎌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바른 가르침과 권징을 따르면서 참된 신앙고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오늘의 말씀을 간략하게 적고, 묵상하여 보십시오.

교회의 화려함보다 은혜인 방도라고 말하는 말씀

지팡이교회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척교회를 한 지 6년이 지나고 7년차가 되었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개척을 한 후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름을 더 알 수 있고, 지팡이교회를 볼 때 마치 저의 아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유심히 지팡이교회당 주변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예배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예배당은 많이 늘었습니다. 예배당이 늘면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성도의 교제가 늘어야 하지만, 현실은 거룩성을 상실하여 일반인으로부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짝퐁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통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마23:25-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눈 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서는 종교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넘어선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들과 같은 분들에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입니다. 먼저는 저에게 적용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님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응답하여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벰전2: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이든 성도이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만인제사장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통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는 진리입니다.

다시 오늘의 양식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지팡이교회 주변을 보면 예배당이 많이 보입니다. 서로들 자신들의 교회가 좋다고 하면서 건물 맨 위에는 경쟁을 하듯 십자가 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탑이 나쁜 것입니까? 예배당을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실내에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의 정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탑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먼저 아파오네요. 예배당 안을 보시면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분들이 보기에 아름답

답도록 세상의 옷과 가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꾸미며 바꾸어 가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마치 마트에서 상품을 걸고 장사를 하듯이, 교회에서도 마트처럼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장사를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라고 강설(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예배당의 화려함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십자가의 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요2: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심으로 성전의 화려함보다 당신님이 직접 성전을 허물고 당신님의 몸으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후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화려합니까? 오히려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한 거룩한 성도에게 말씀으로 당신님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화려함처럼, 예배당도 화려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실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을 보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하십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인테리어의 화려함이 아니라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도라고 하면서 다른 것으로 전도하고자 한다면 ‘개독교’라고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강설(설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원고를 써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원고를 작성하여 전해야 합니다. 원고를 쓰면서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무엇이라고 화를 내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겉으로는 매우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과 부패밖에 없는 무덤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오래된 무덤들을 행인들에게 분명히 눈에 띄도록 관습적으로 회칠을 했습니다. 행인들이 무덤에 접촉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것보다 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엡4:23-24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생활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사모합시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읍시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고 성공적이기보다 성경적인 교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관심으로 참여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1. 오늘 지팡이교회 예배당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2. 주일 강설은 마태복음, 오후에는 벨기에(벨직) 신앙고백서, 수요모임은 성경 이렇게 읽기를 바라는 모임으로 강설과 성경공부하고 있습니다.
3. 지팡이교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http://reformch.org> 지팡이교회는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장로교회입니다.
4. 오늘은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에는 가정과 설날의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어제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지팡이교회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방학을 즐겁고 자신을 위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속에 나타내기 위한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성경적 설교, 감격이 있는 예배, 이웃 사랑의 실천, 행복한 성도들의 사귄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초대합니다!!**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저녁	7:30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찾아오시는 길

지팡이교회 담임목사 전은덕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18-2 태복빌딩 2층
 ☎ 031-591-6911, 010-6789-6901
 기획/제작: 울터 1599-1250 www.woomter.com